



담당 부서: 미래한강본부 공원부 공원시설과  사진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사진 있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쪽수: 6쪽	공원부장	허현수	3780-0627
	공원시설과장	양돈욱	3780-0840

## 서울시, '도심 속 워터파크' 한강 수영장·물놀이장 20일 동시 개장

- 뚝섬·여의도·잠원 수영장, 잠실·양화·난지 물놀이장 휴무 없이 6.20~8.18 운영
- 사계절 즐기는 물놀이장 잠실 정식 개장...전날 지역 이동 300명 초청 동행 행사
- 대장균 등 수질 실시간 표출 전광판, 바가지 가격 차단, 안전요원 배치 등 편의성↑
- 요금은 성인 3·5천원, 어린이 1·3천원, 9~18시 운영, 잠실은 20시까지 이용

- 여름철 무더위를 날려줄 도심 속 워터파크, 서울시 한강 야외수영장과 물놀이장 총 6개소가 20일(목)에 동시 개장한다.
- 서울시가 여름철을 맞아 시민들이 가까운 한강에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6월 20일(목)부터 8월 18일(일)까지 60일간 뚝섬·여의도·잠원한강공원 수영장과 잠실·양화·난지한강공원 물놀이장을 운영한다고 밝혔다.
  - 망원 수영장은 현재 진행 중인 '성산대교 북단 성능개선공사'로 인해 운영되지 않고, 광나루 수영장은 '자연형 물놀이장 조성공사'가 진행 중에 있어 올해는 개장하지 않는다.
- 특히 올해 달라지는 점은 사계절 즐길 수 있는 자연형 물놀이장으로 재탄생한 '잠실 물놀이장'이 정식 개장한다는 것이다. 총 2만 8천㎡ 규모로 한강 수영장 중 가장 커 시민들은 쾌적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다.

- 또한, 수영장과 물놀이장 현장에 대장균, 소독제, 탁도 등 수질의 상태를 실시간 알려주는 ‘LED 전광판’도 신규로 설치된다. 시민들은 안전하고 깨끗한 수질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한 후 안심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.
- 서울시 한강 야외수영장과 물놀이장은 도심 한가운데 위치해 접근성이 좋고, 한강을 바라보며 수영을 즐길 수 있어 시민들의 사랑을 꾸준히 받아오고 있다. 지난해에는 총 21만 5,325명이 방문해 한강에서 소중한 추억을 만들고 돌아갔다.
- 수영장 이용요금은 어린이 3천 원, 청소년 4천 원, 성인 5천 원이고, 물놀이장은 어린이 1천 원, 청소년 2천 원, 성인 3천 원이다. 6세 미만은 무료다.
  -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(카드에 등재된 가족 포함), 65세 이상 어르신,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보호자 1명(1~3급 해당),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(신분증, 등록증, 가족관계증명서, 의료보험증 등)를 제출하는 경우 입장료의 50%를 할인받는다.
- 수영장·물놀이장은 60일 동안 휴무 없이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. 새로 개장하는 잠실 물놀이장은 오후 8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.
  - 다만, 태풍, 집중호우, 미세먼지 경보,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등 기상악화 시 수영장·물놀이장 운영이 중단된다. 시설 이용 전 기상예보, 미래한강본부 누리집을 확인한 후 방문하는 것을 권장한다.

<사계절 물놀이장으로 새단장한 잠실 물놀이장, 다양한 시설 설치된 여의도 수영장 등 6개소 개장>

- 한강 수영장과 물놀이장 6개소는 연령대별로 즐길 수 있도록 성인풀, 청소년풀, 어린이풀, 유아풀로 나누어 구성돼 있다. 장소별 특성에 따라 취향에 맞게 골라서 즐길 수 있다.
  
- 뚝섬 수영장 : 흐르는 물에 튜브를 타고 도는 유수풀과 시원한 물놀이가 쏟아지는 4m 높이의 아쿠아링, 일광욕을 즐길 수 있는 선텐장이 설치돼 있다. 지하철 7호선 자양역과 인접해 대중교통 접근성이 가장 좋다.
  
- 여의도 수영장 : 시원한 물놀이가 쏟아지는 아쿠아링, 바닥분수, 조형분수, 유로번지, 미니 바이킹 등 다양한 시설이 설치돼 있어 워터파크 못지 않은 수영장이다.
  
- 잠원 수영장 : 넓은 공간에 성인풀(수심 1.5m), 청소년풀(1.2m), 유아풀(0.5m)로 구분돼 있고 직사각형 형태의 수조가 설치돼 있어 수영을 즐기기에 가장 적합하다.
  
- 잠실 물놀이장 : 한강 방향으로 인피티니월(Infinity Wall)이 설치된 ‘원더풀’, 가운데로 갈수록 깊이가 깊어지는 최대 수심 60cm의 ‘조이풀’, 얇은 수심의 ‘유아풀’이 조성돼 있다. 자갈로 만든 실개천 ‘자연형 계류’, 조형 분수 등 다양한 시설과 넓은 녹지도 있어 기존 수영장과는 또 다른 분위기에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다.

- 난지 물놀이장 : 한강을 가장 가까워서 조망할 수 있는 인피니티풀 (Infinity Pool) 형태로 조성되어 있으며, 한강을 배경으로 분수도 있어 가족 단위로 많이 즐겨 찾는 여가시설이다.
- 양화 물놀이장 : 규모는 크지 않으나 어린이가 이용하기 좋은 수심인 0.8m의 풀이 한강과 연접해 설치돼 있고, 실개천 등 자연 친화적인 친수공간과 목재 데크 쉼터가 조성돼 있다.

<대장균, 탁도 등 수질 상태 표출 '전광판' 설치, 안전요원 배치, 바가지 가격 차단 등 이용 편의성↑>

- 서울시는 한강 수영장·물놀이장 이용 시민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▲수질 ▲안전 ▲가격 3개 분야에서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.
- 먼저, 깨끗한 수질을 위해 노후한 여과기 8대를 신규로 교체했다. 시설 운영 기간 동안에는 점검반(2인/1조)을 통해 매일 탁도, 소독제, pH(산성) 간이 수질검사를 실시하고, 주 1회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해 대장균 수치를 확인한다. 모든 수치는 현장 'LED 전광판'에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.
-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에 안전요원 총 62명을 배치하고, 의무실에는 간호조무사가 상주한다. 이 밖에도 감시탑, 구명환, 자동심장충격기, 구급함 등을 갖추고 있어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. 근무자 대상 심폐소생술 등 안전교육도 실시해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계획이다.

□ 또한, 매점·휴게음식점의 바가지 가격을 차단한다. 사전에 한강공원 편의점 등 시중가 수준인지 확인한 후 영업을 승인하고, 현장점검을 통해 승인 가격보다 비싸게 판매하는 경우 위약금을 부과할 계획이다. 위약금액도 지난해 대비 10배로 대폭 상향(1회 기준 10만 원 → 100만 원) 조정했다. 3회 이상 적발 시 부정당 업자 지정, 입찰 참가 제한 등 제재 규정도 마련한다.

○ 이 밖에도 현장 위생환경을 철저히 점검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제공한다.

□ 한편, 서울시는 정식 개장 전날(6.19) 잠실 물놀이장에서 15시~18시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300명을 초청하는 동행 행사를 개최한다. 이날 레크리에이션, 물총놀이, 마술공연, 해치와 함께하는 네컷사진관 등 아이들이 좋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.

○ 이번 행사는 KB증권에서 지역아동센터협의회를 통해 사회공헌사업으로 추진하며, 물놀이장 입장료, 간식, 물총, 파라솔 등을 지원한다.

□ 주용태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“도심 속 가까운 피서지인 한강 수영장과 물놀이장이 여름을 맞아 6월 20일(목)부터 개장한다.”며 “올여름도 한강에서 무더위를 피해 가족, 친구, 연인과 함께 시원한 여름을 보내시길 바란다. 서울시는 시민들이 한강에서 안전하고 즐겁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수질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.”고 말했다.

※ 붙임 : 참고사진 1부

# 수영장 및 물놀이장 사진



독섬 수영장



여의도 수영장



잠원 수영장



잠실 물놀이장



양화 물놀이장



난지 물놀이장